

## Art Festival 2022

CICA Museum

November 11-13, 2022

2022.11.11-13

**Featured Artists** 참여작가: **Byeon Seung Yeon** (변승연), **Mars Garnier**, **GHEEM Sookyoung** (김수경), **Guk So Hyun** (국소현), **Jae Hui Jeong** (정재희), **Joo Mi Haeng** (주미행), **Minhee Jung** (정민희), **Jung Sol** (정솔), **Jung Suji** (정수지), **Kang Sua** (강수아), **Kim Hana** (김하나), **Kim Hwi** (김휘), **Suyeon Kim** (김수연), **Kim Tae Rin** (김태린), **Hyewon Lee** (이혜원), **Lee Jaeyoun** (이재운), **Lee Woojoo** (이우주), **Leem Eugene** (임유진), **Moon Hye Ju** (문혜주), **ota** (오타), **Rosie Park** (로지 박), **Jiwon Ryu** (류지원), **Anna Sheriakova**, **Shim Junbo** (심준보), **Sori Choi** (최소리), **Song Su Been** (송수빈), **Soonsim** (순심), **Woo yeon Ju** (우연주), **Yoon Minkyung** (윤민경), **Dayoung Yu** (유다영), **Farangiz Yusupova**

### Byeon Seung Yeon (변승연)



“Cliff” (2020), “drawings” (2021), “pattern” (2018), “wonkyfield” (2018)

기억은 현실과 달리 매우 주관적이고 심리적이면서, 가장 사실적이다. 눈은 아주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지만 우리는 심리 상태에 따라 눈 앞의 상을 무한히 왜곡하여 받아들인다. 이는 다른 감각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이 주관적인 상은 현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나타난다. 기억은 이러한 감각의 작용이며, 개인이 세계와 어떤 형식으로 마주하고 있는지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현실과 감각이 한데 뒤섞여 모호한 형태로 보이는 기억이라는 상은 그 어떤 것보다 예민한 감각의 총체이다.

나는 내가 감각의 총체라고 정의한 '기억'을 그대로 화면에 옮기며 매우 비현실적인 재현이자 가장 사실적인 관찰을 진행한다. 세계가 현실과 작용하는 형식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이 세계에 어떻게 존재했으며,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 묘사한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 그리고 감각이라는 동시적 만남을 통해 나는 세계와 연결된 흔적을 느끼며, 매체의 물성을 활용한 즉발적인 패턴들로 그 흔적을 박제하는데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온 감각을 통해 내가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런 미적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각의 체험은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각성시키며, 존재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변승연은 개인이 기억을 사유하는 방식을 풍경을 통하여 탐구하고 있다.

### Mars Garnier



“Blue Guache” (2022)

Blue gauche is about an inner space of "self expression & the existence of nothing" this piece orchestrates an imbalanced balance in a naïve, raw, free, and rule-less form. Each element is self-sustaining and co-shaped of small other segments. The work on giclée print has a life pulse distinctly its 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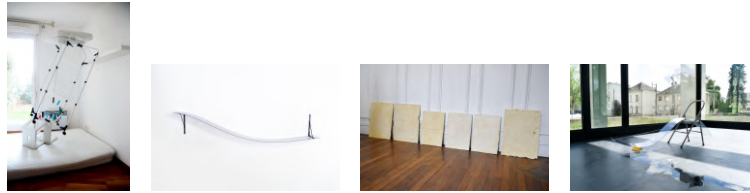
### Mars Garnier (1976-present)

With a bachelor's degree in fine arts, an art director and founder of Milk and Honey agency, she was born in the Netherlands and now she is embarking on a new path in her career and life.

Her intuitive sense of creating continues daily to explore new avenues through discoveries of ever-changing identity, stories, collecting colours, fashion, sounds, and shapes, where every small detail has its place in creating her language.

She sees her work taking on a distinct personality of their own with the interactions of fleeting thoughts in line with her inner world and the unknown places of unconsciousness. Her art pieces have a unique transcending spirit that holds your interest and changes in perception, or moments of recognition.

### GHEEM Sookyoung (김수경)



#### “Room Portrait” (2020 - 2022), “Shelf” “Skin I Live In”, “YOGA” (2018 - 2019)

##### Yoga

우리는 엄마의 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항상 관계하며 살아간다. 작가는 서로 다른 형태의 개인들이 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유연성을 ‘요가’라는 제스처를 통해 말한다.

작가는 가공되지 않은 재료와 사물들의 성질과 균형을 활용해 재배치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관계성을 드러내는데 주목한다. 재료들은 시간의 흐름과 온도, 그들 사이의 관계 설정에 따라 줄어들기도, 움직임을 갖기도 혹은 사라지기도 하며, 이 변형으로 도출되는 결과물의 이미지는 그것이 속한 환경과 재료들의 물성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다. 감각적 성질이 다른 오브제들의 변주가 이루어내는 유기체적 형태를 통해 작가는 관계들의 불안정성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한다.

The moment when we are separated from our mother's body, we constantly enter into a relationship with others. We affect and are affected by all that surrounds us in interacting. Any internal changes bring transformation to relations, also the other way around. In this constant circulation, every being evolves perpetually within the relation. I depict the impalpable form of the connection through bodily gestures. The body is a medium of encounters with others. But, on the other side, it does not cease as an ever-changing form of relationship.

The Yoga series is inspired by yoga postures, an ensemble of spiritual and bodily practices - a combination of external and internal performance. Within this performance, I look for the possibility of appropriating the flexibility and the tension when we entered into relation. The work is constituted by the symbol of everyday objects and organic material. Every component works as an organ, beyond a material, and interacts with each other. The work continuously is in subtle transformation and determines its shape itself. It provides the site where one can visually experience the fluid movements of relations with its interaction process.

##### Room Portrait

During the last 20 months, my postal code has been changed six times. In 2 continents, two countries, four cities. I constantly move. Home is always a space where I will leave and always a dream like an illusion and a purpose. I'm still trying to find stability in this temporary and incomplete space. I'm talking about the inconsistency at home through the awkward coexistence between the objects in my room. By exposing my perception of the home through a visible, I observe my inner aspect, which constructs me.

### GHEEM Sookyoung (김수경)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작가로서 나는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조명한다. 우리의 삶은 항상 언어, 관습, 시간, 측정 단위, 법, 제도, 통화단위와 같은 무형의 개념으로부터의 영향 하에 구성되어왔다. 나는 성인이 된 이후, 계속해서 삶의 공간을 이동해왔다. 가구나 옷 같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닌,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개념들로부터, 나는 삶의 공간의 변화를 자각하였다. 나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험으로 느끼고 체화될 수 있는 것들을 설치와 퍼포먼스의 매체를 통해 가시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리고 이는 작업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의 작업으로 포착된다. 새로운 환경에 스며들며 조금씩 변화하는 나의 모습처럼, 작업의 형태도 눈치채지 못할만큼 조금씩 변화해간다.

나의 작업을 구성하는 것 들은 대개 날 것의 재료와 사물들이다. 재료와 사물들의 성질과 균형을 활용해 재배치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관계성을 드러내는데 주목한다. 재료들은 시간의 흐름과 온도, 그들 사이의 관계 설정에 따라 줄어들기도, 움직임을 갖기도 혹은 사라지기도 하며, 이 변형으로 도출되는 결과물의 이미지는 그것이 속한 환경과 재료들의 물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연약하고 위태로운 조각은 나의 삶의 한 지점에서 건져 올린, 익숙해서 눈에 띄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문들과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관계들의 불안정성에 대한 생각들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Some things do exist, although invisible. I, as an artist, shed light on those hidden things that construct our daily life. Our lives have always been structured by concepts such as conventions, social engagements, time, language, measuring units, law, or paradigms. Ever since I grew up, I have constantly been shifting between different places for living. In each shift, I could sense the change in my living space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intangibles instead of tangible elements like furniture or clothes. My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are the visualizations of those things that are not visible yet can be felt and experienced. I capture them through my works that transform with their surroundings. The works change their forms at a tedious pace, just as I slowly permeate and adjust myself to a new environment.

My works consist of raw materials and objects. I focus on making their relationship transparent through rearrangement using their nature and balance. Materials shrink, move, or melt with time with the change of temperature and tension in their relationships. The transformations naturally lead to an outcome dependent on the work's materiality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belong. The pieces that appear as ephemeral and fragile reflect precarious elements in life, especially the inconspicuous moments and instability of different relationships. I transfer the thoughts and questions on them into my works, reconstructing them visually within a given space.

# **Guk So Hyun (국소현)**



**“Divide & Paint #001” (2021), “Divide & Paint #002” (2021), “Divide & Paint #004” (2021), “Divide & Paint #006” (2021), “Divide & Paint #009” (2021), “Divide & Paint #013” (2021), “Divide & Paint #014” (2021), “Divide & Paint #015” (2021), “Divide & Paint #017” (2021), “Divide & Paint #018” (2021), “Divide & Paint #020” (2021), “Genuine dot” (2022), “Circle” (2022), “Love Myself” (2022)**

일상에서 보이는 규칙과 반복적인 현상에 조형적 사고를 통하여 화면에 배치, 재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정제되는 패턴의 연결성으로 소통과 환승되는 현상을 조형적으로 승화시켜 화면에 표현한 작품이다.

우리들은 반복되는 상황과 돌발, 돌출되는 현상을 평소 경험하게 되고, 나는 이러한 상황들에 관심과 흥미를 느낀다. 그 안에서의 소통과 사고의 환승을 통하여, 나의 일상적인 메커니즘적 심리 변화를 대입하여 조형적인 작업으로 연구하고 있는 작가이다.

**Jae Hui Jeong (정재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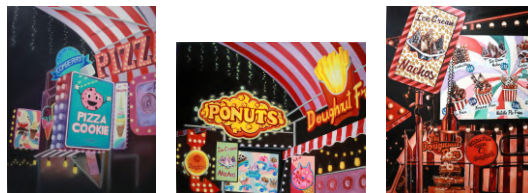
**“beyond (1)” (2022), “beyond (2)” (2022), “beyond (3)” (2022), “Due to blue” (2021), “Flow” (2021),  
“Untitled (1)” (2022), “Untitled (2)” (2022), “Untitled (3)” (2022), “Where” (2021)**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사유. 어디에선 공간은 있고, 공간에 무언가 채워지면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물리적인 것 뿐 아니라 심리적인것에도 포함된다. 나는 그 빈 공간, 비어있음에 집중한다. 건축물에서는 보이드라 부른다. 마당처럼 가능성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글과 글 사이에는 간격이 필요하다. 그래야 읽기가 편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서로간의 관계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마음에는 여유가 필요하다. 삶을 가 치있게 바라보도록 하니까. 동양화에서는 여백의 미를 중요시했다. 대상의 형체보다 내 용과 의미를 전달하기 더 좋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평면 위에 여백을 그린다. 채워지고 남을 공간을 그린다. 형체의 구체적인 이미지 보다는 형체를 비어있게 하여 빈 공간이 주는 가능성을 나타내려 한다.

**Jae Hui Jeong (정재희)**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일러스트레이션 석사를 수료하였다. 자신의 철학적 관점과 세계와의 소통을 위해 회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인간의 존재와 심리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기보다 작품을 통해 느끼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Joo Mi Haeng (주미행)**



**“Eat street market 1” (2019), “Eat street market 2” (2022), “Eat street market 3” (2022)**

오래 전 떠난 여행 속 시간들.. 그곳에서 만난 행복했던 공간. 빛나는 네온사인 조명과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했던 Eat street market은 고단했던 삶 속에 작은 힐링을 느끼게 해준 공간입니다. 따스한 조명과 색으로 표현한 행복한 공간 그림은 현재 의 바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심포 작품입니다.

빛나는 조명, 행복했던 경험 속 공간을 그리는 작가 주미행입니다.

**Minhee Jung (정민희)**



**“Discover - garden space #1” (2022), “Discover - garden space #2” (2022), “Discover - garden space #5” (2022), “Discover - garden space #6” (2022), “Discover - garden space #7” (2022)**

**Minhee Jung (정민희):**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에 있는 자연을 그립니다.

**Jung Sol (정솔)**



**“Azit” (2021), “Home” (2021), “House” (2021), “뒷간 (Khazi)” (2021), “목간 Bathroom” (2021)**

시골에서 자란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들이 모티브가 된 작품들이다. 기이하게 절충된 고향집, 쪽배를 타고 강에서 아지트를 만들어 놀던 기억, 마당 밖에 있던 변소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Jung Sol (정솔)**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기억과 관념을 디지털로 콜라주하며 몽상들을 희화화시킨다. 또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회화와 부조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Jung Suji (정수지)**



**“Au bout de la frontière” (2022), “Fissure” (2021)**

**Au bout de la frontière** 경계의 끝에서

모니터와 모니터에서 반사된 빛을 비추는 거울이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내뿜는 빛과 거울에 반사된 빛은 서로 다른 빛일까요? 모니터의 세계와 거울의 세계는 빛을 매개체로 합쳐집니다. 거울이 모니터의 빛을 반사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모니터에서 빛이 시작되었는지, 거울에서 빛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울의 세계와 모니터의 경계는 무너지고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끅니다.

**Fissure** 금

빛이 있습니다. 빛은 한곳에 고정되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빛납니다. 끝없이 빛납니다. 빛의 움직임은 촬영하는 저에게서 나옵니다. 저는 빛을 공간에 넓게 퍼뜨립니다. 저는 시간과 공간에 금을 넣습니다. 빛은 시간에서 공간으로 넘어옵니다.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빛이 현실에 있는 빛인지 ‘저 너머’에서 오는 빛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빛’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무형의 두 세계는 이미 무너졌고 합쳐졌습니다.



**Jung Suji (정수지):** 제 작업은 일상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집중합니다. 저는 형태, 언어, 그리고 움직임이 서로 대면하는 현실 세계 속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탐구자입니다.

#### Kang Sua (강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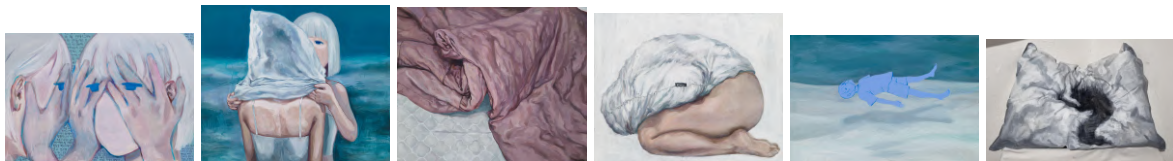


#### “Creation and Extinction” (2022)

검은 원형으로 시작되는 작업은 연속되며, 부피를 가진 공간이 된다. 세상의 모든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와 하나의 구는 온 우주의 전부 이기도 하다는 함의를, 생성 그리고 소멸이라는 양면성을 통해 흑과 붉음 덩어리로 엮어내었다. 물성의 축적과 생성 속 무한한 시간 그리고 붉게 축소 되어진 소멸을 통해 형태가 바뀌며 다시 새로이 윤회 되어짐을 시각화 하였다.

**Kang Sua (강수아):** 작품을 표현해 내면서 그안에 나 자신 그리고 삶의 전반을 녹여 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 작품은 날것 그대로의 생각이 투영된 형태 일 때가 많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나는 세상에 재하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한다. 관람객으로 하여금 내 작품을 보면서 각자의 살아온 시간과 추억을 회상해 보고 저마다의 떠오르는 생각과 축소되고 부풀려진 마음 그 다양한 기분들을 온전히 새롭게 느껴보는 기회가 되었음 한다.

#### Kim Hana (김하나)



#### “3시와 4시의 대화” (2022), “그냥 베개가 되고 싶어요” (2022), “껌질” (2021), “당신은 베개가 될 수 없습니다” (2021), “수면부유” (2022), “잠깐 땅이랑 합체하고 올게” (2022)

당신은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적당한 수면을 하고 매일 아침 괜찮은 상태로 이불로부터 나오고 있나요? 제 그림은 그러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피로해도 피로한 줄 모르고, 또는 잠으로 현실도피하고 싶고, 계속 모르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하루의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이니까, 본인의 마음을 직시하고 충족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러한 계기가, 제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Are you sleeping well? Are you getting adequate sleep time and getting out of bed in good shape every morning? My paintings are about such a mind like that. Even if you're tired, you don't know you're tired, or you just want to escape reality through sleep, but without any recognition. However it's an activity that takes up too much of our day to live without knowing it. So I want you to face your heart and satisfy it yourself. I hope that such an opportunity will become my paintings.

김하나 작가는 평면 회화와 침구 소재로 제작한 입체물을 통해 우리가 지금껏 외면해온 피로와 잠을 통한 회피 기질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작가 본인이 느꼈던 불면의 감각을 이미지화 시킴으로써 감상자가 자기 경험을 투영하고, 삶에서 원래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했던, 그러나 오늘날 등한시되기 십상인 수면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Through flat paintings and three-dimensional objects made with bedding materials, **Hana Kim** is trying to recognize fatigue and avoidance through sleep, which we have been neglecting so far. By making images of insomnia that the artist felt herself, the viewer projects his or her experience and looks back on the meaning of sleep, which was originally supposed to occupy a large part in life, but is often neglected today.

## Kim Hwi (김휘)



### - Extinction

진화론에 의하면 뜨거운 대기 환경으로 인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극심한 지구온난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가 계속 된다면 우리는 멸종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지구는 과거를 반복하는 리셋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상상력에서 시작하여 멸종의 상징적인 공룡과 식물들이 사실은 종의 존속을 위해 로켓을 타고 살아남기 어려운 지구를 잠시 떠났다는 주제로 작품을 그렸다. 우리 역시 지구가 살아남기 어려워 멸종하게 된다면 몇몇은 로켓을 타고 지구를 떠나지 않을까? 지구를 아프게 한 생명체는 멸종하고 다시 지구의 환경은 되돌아 올 것이다.

According to the theory of evolution, there were times when the hot air environment made life unsuitable for life. Currently, we are experiencing extreme global warming, and if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continue, we will become extinct. And starting from the imagination that the earth would undergo a reset that repeats the past, the symbolic dinosaurs and plants of extinction actually left the earth, where it was difficult to survive on a rocket for subordination of species, for a while. If we, too, cannot survive on the earth and become extinct, wouldn't some of us leave the earth on a rocket? The living things that caused the earth to become ill will become extinct and the earth's environment will come back again.

### - 十長生 Festival

인간들은 항상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그렇기에 십장생이라는 물상을 그리고 판매하며 구매했다. 그렇지만 정작 인간들은 자신의 장생 불사만을 생각하고 그림 속의 십장생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자연은 파괴되고 있으며 동물들은 박제되고 털이 뽑히는 등 죽어가고 있다. 이중적인 인간들의 태도에 대해 고찰해본다.

Humans always wish for disease-free longevity. So, I drew a product called Ten Longevity, sold it, and bought it. However, humans only think of their own longevity and immortality and are not interested in the ten longevity in the picture. Nature is being destroyed and animals are dying, stuffed and plucked. Let's examine the double attitude of human beings.

### - Escape The Trauma

사막의 낙타는 밤에 묶여 있던 기억으로 인해 아침에 끈을 풀어도 도망가지 못 한다. 우리도 역시 지나간 상처를 기억하기에 현재의 발목을 붙잡혀 있다는 것이다. 작품 속의 낙타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아침이 밝고 탈출을 결심한다. 지나가는 차를 히치하이킹하고자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팔이 뜯겨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트라우마의 극복에 관해 고찰해본다.

The camel in the desert can't escape even if she unties her laces in the morning because of her memories of being tied up at night. We too are stuck on the ankles of the present because we remember the wounds of the past. The camel in the work decides to escape in the morning brightly to overcome this trauma. He wants to hitchhike a passing car, but his arm is torn in the process of escaping, and he doubts whether he will be able to escape. Consider overcoming trauma.

### - Into The Moon

나는 주로 사람들의 아픔을 고찰한다. 그 중 밤에 묶인 기억으로 아침에 끈을 풀어도 도망가지 못 하는 낙타를 소재로 하였다. 그러나 나의 작품 속 낙타는 트라우마를 직접 마주하고자 자신을 옥죄어오는 밤의 상징인 달을 향해 우주로 가며 지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였다. 트라우마를 직접 마주하는 용기에 관해 고찰해 본 작품이다.

I mainly consider the suffering of people. Among them, the subject was a camel that could not escape even if the rope was untied in the morning as a memory tied at night. However, the camel in my work overcomes the pain of the past by going into space towards the moon, the symbol of the night that tightens itself to face the trauma directly. It is a work that examines the courage to face trauma directly.

**Kim Hwi (김휘)**는 평면 회화를 작업하는 작가. 1997년 대구에서 태어나 사범대학에서 사회과 과목을 전공하고 졸업했다. 사회현상과 개인적인 견해를 혼합한 주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다. 부드러움이 특징인 소재로 거친 표면을 나타내고자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의미나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업을 하나로 통일해 전달하고자 한다.

An artist who works on flat paintings. Born in Daegu in 1997, he majored in social studies at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graduated. He uses subjects that blend social phenomena and personal views, mainly acrylic paints on canvas. He wants to express a rough surface with a material characterized by softness, and he wants to unify and deliver works that have two or more meanings or double meanings into one.

**Suyeon Kim (김수연)**



**“불사지르는 캔버스” (2020), “도끼의 전과” (2020), “여탕의 오염물 제거” (2020)**

**불사지르는 캔버스**

사람들은 때로 아무도 없을 때 은밀히 무엇인가 없애고 싶어한다. 제목 그대로 불사질러 작품을 없애 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니 내가 할수있는 최선을 다해 없애보았다.

**-도끼의 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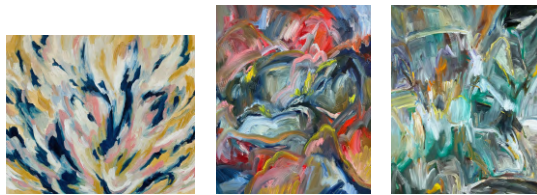
그는 나무를 베었다. 그리곤 불길이 갑자기 치 솟아 올랐다. 그 안 벌어진 상처 안에는 강한 불길이 일어났고. 벌어진 상처안에는 비명과 붉은 피가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 닌 도끼의 전과 라고

**-여탕의 오염물 제거**

이 여자들은 무엇인가 제거 중이다. 찰나의 순간 뜨거운 물에 나를 담귀 불려 없애보자. 수중기를 타고 날라간다. 날라간 수중기가 다시 물로 돌아오지만 다시 또 날려 보낸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무수한 생성과 소멸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보이는 감각들, 그 감각들을 연 구합니다. 제 작품에서 시리고 차갑고 뜨겁고 흐르는 등 다양한 감각들을 발견해 주시길 바랍니다.

**Kim Tae Rin (김태린)**



**“Breeze” (2022), “Find where love hides” (2022), “망각의 밤 (oblivion)” (2022)**

저의 작업은 개인적인 경험, 혹은 그 경험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비구상적으로 묘사하는것 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이미지와 색채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연상되는 다양한 심상을 담아 내려고 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는 대상들을 과거와 지금의 자신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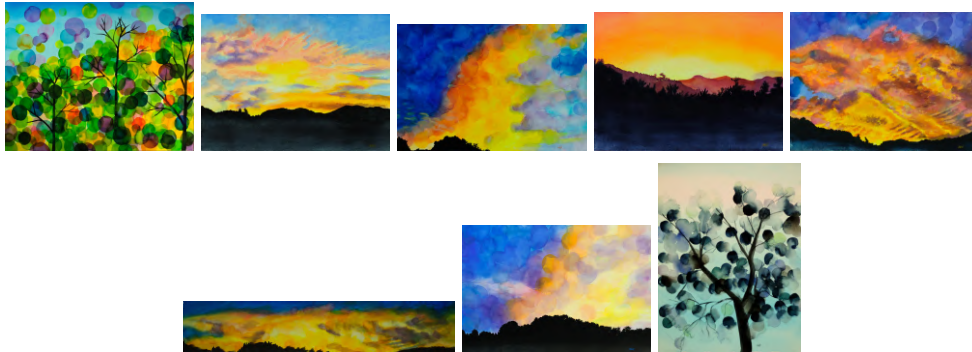
이러한 대상들은 나아가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서로 마주하는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곡선 속에서 변화 한다는 것을 자유로운 터치와 선들의 연결로 나타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변화 속에서 ‘나’의 자아는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나들며 가변적으로 존재한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된다는것. 삶은 우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는것.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 순간의 내가 만들어졌으며, 이 또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는 이의 시각에따라 작품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길 바라기때문에 형태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작업의 목적은 단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한정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시점에서 해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가변적 흐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Hyewon Lee (이혜원)



“Forest, Rain and their Music” (2020), “Sunset” (2020-2021)

자연은 나의 작품에서 중요한 소재이자 영감의 원천이다. 빛, 색, 나무의 형태, 계절에 따라 바뀌는 나무, 산의 모습, 하루 중에도 빛에 의해 변화하는 색, 그리고 구름의 형태와 하늘 이 모든 것이 내 작품 속에 들어있다. 내 작품에서 빛을 빼 놓을 수 없다. 빛은 분위기, 느낌, 색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할 뿐 아니라 따뜻하게 감싼다. 빛이 없다면 그림은 검은색으로 뒤덮일 것이다. 이토록 다양한 색과 형태가 눈 안에 들어오며 표현하게 되는 것도 이 빛 때문이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빛과 색은 그림의 소재가 된다. 색이 그림에서 혼합되고 때로는 물감과 물이 남아서 그림을 그린다. 언제 그림을 끝내느냐가 중요하다. 비우고 기다리고 절제할 때 완성된다.

**Hyewon Lee (이혜원)**는 대구 출신의 작가이며 현재는 충남 천안에서 작업하고 있다. 영남대에서 조소과를 졸업하였고 영국 캔터베리 **KIAD**에서 순수예술 석사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동양화와 서양화 사이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학부시절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를 다룬적이 있으며 영국으로 떠나 기전 한국을 알리기 위해 한국화를 조금더 공부했다. 석사에서는 설치작업으로 한지에 염색해 작업을 했다. 내 작품을 굳이 동양화 서양화 입체로 구분짓지 않으려 한다. 재료는 한국화물감 그리고 물을 흡수하기 좋은 수채화지를 사용한다. 이 두 재료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 내 작품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재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연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자연 중 나무, 노을, 하늘, 최근에는 물을 포함하며 점을 찍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I'm an artist who was born in Daegu and is now living in Cheonan in Korea. I graduated with a Bachelor of Arts in Sculpture at Yeungnam University in Korea and MA in Fine Art at KIAD in Canterbury in the UK. In my paintings I am influenced by both Eastern and Western paintings. I explored Oriental painting, Oil painting, Design, and Sculpture in my BA. Before going to the UK, I studied Korean painting in more depth to introduce Korean art elsewhere. During my MA, I made installation works using Korean paper(Hanji), which I dyed myself. I don't want to categorize my work as Eastern or Western or three-dimensional sculptures. I am using Korean paints as a medium and watercolour paper which absorbs water well. This combination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my present work which I express what I want. I concentrate on expressing nature living near nature. Among the nature, I express what I see making dots of trees, sunset, sky, and more recently, water.

Lee Jaeyoun (이재윤)



“Pink apartment” (2022), “한 여름밤의 꿈” (2022), “겨울처럼” (2022), “봄” (2022)

이번에 보이게 된 작업들은 ‘거주 공간’에 대한 작업들입니다. 집이라는 특수 공간이 가진 감정과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거주공간이 저에게 주는 안정적인 이미지와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한 사람을 대표할 수 있음에 흥미가 있어 거주 공간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종이 위에 흡수되는 점들의 축적성으로 만들어지는 단색의 이미지와 하얀색의 빛으로 그려진 주 거 공간 외부 모습의 작품들입니다. 점을 뿌리는 방식은 표현되고 있는 이미지의 선명도와 연결 되며, 작품 외부에서 거주 공간(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집값이, 어떤 이에게는 그 곳의 주인이, 또 다른 이에게는 그 집을 이루고 있는 환 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작품 속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관람자의 서사와 작가인 저의 서사가 합쳐질 수 있음을 바라는 작업입니다.

The art works that I show this time are about 'Living Space'. I wanted to express the emotions and images of the 'special' space called 'HOME'. I worked on the living space because I was interested in the stable image the living space gives me and the ability to represent a one person as an independent space.

These images are painted with solid colors created by the accumulation of dots absorbed on paper and the color of white light. The method of scattering dots is connected with the clarity of the image being expressed, and this is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person looking at the 'Home' outside the work.

People who look at my work may wonder about the price of space in the work, the owner of it, or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house is made up. Those questions can be expected to create a story about the objects in the works. These are works that I hope that the viewer's narrative and my narrative as a artist can be combined.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현대미술을 전공 중이며, 주로 특정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감정에 대한 흥미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과 글을 통해 제 생각 을 '정의'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생각들이 단순히 저에게만 그치지 않고 타인들의 주관들이 들어가 풍부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전시에 대한 흥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에서 쌓이는 점들과 레이어처럼 관람을 통해 쌓여 지는 서사들 과 교류를 통해 스스로가 다채로워질 수 있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ee Woojoo (이우주)



### “Happily ever after” (2022), “Happily ever after” (2022), “Run away from me, please” (2022), “Still-life Of love” (2022)

작가는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려한다. 또한 마음의 생김새에 대하여 고민한다. 일차원적인 감정이 아닌 행복한 와중에 찾아오는 불안함, 자기혐오와 결핍에서 오는 이기심, 원망속에서 느낀 연민, 관계유지를 위한 자기파괴등 관계에 있어서 느껴온 다양한 감정들을 작업하고 마음이 몸 속의 어느 곳에 붙어있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 실체를 작업으로 보여주려한다.

감정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과 그것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나가려 작업을 하는 작가 **Lee Woojoo** 이우주라고 합니다.

### Leem Eugene (임유진)



### “생명의 온도” (2022), “자연의 온도” (2022), “공기 온도” (2022), “사람들의 온도” (2022), “춤추는 온도” (2022), “불꽃” (2022)

온도의 빛은 밖에서 안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부터 발현 되는 빛이며 따뜻함을 말한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저마다의 태양을 지니고 있다. 너무 가까워 소멸 되기도 하고 스스로의 온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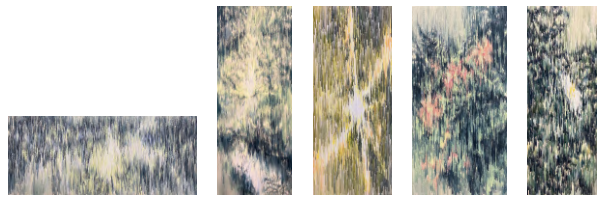
너무 낮아 타인과의 스킨쉽이 있지 않으면 온도가 식어 버리기도 한다. 관계에서의 안전 거리가 있듯이 적정 온도는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빛의 밝고 어둠이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도를 회화로 나타내려 한다.

### Leem Eugene (임유진)

팬데믹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사회,문화,정치..세상은 방사형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양극화와 집단 이기주의 혐오 감정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사회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평온 했으면 조금 더 삶에서 의미와 따듯함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시각적 인지를 빛이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명암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태의 사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대상이 갖는 의미이든 물성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따듯한 온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제 작업물을 통해 느껴졌으면 합니다.

### Moon Hye Ju (문혜주)



“오후 5시 41분” (2022), “오후 6시 32분” (2022), “오후 6시 40분” (2022), “오후 7시 18분” (2022), “오후 12시 29분” (2022)

삶에 몰두하며 살아가다 생각의 방향을 돌리고 싶을 때, 일상을 거닐다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움직임에도 변화하는 풍경을 발견한다. 오후의 빛이 품은 자연은 동일한 시간이지만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자연의 색감, 형태, 움직임, 당시의 온도가 합쳐진 새로운 감정은 마치 내 눈 속에서 흘러내리는 듯 오후의 빛과 선으로 번져 쏟아지며 기록된다. 쏟아진 선들의 불분명한 경계의 관념이 각자의 경험에 빔대어진 형상을 불러일으키며 주의를 환기해 준다.

문혜주 작가에게 작업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풍경들 중, 눈을 멈추게 하는 새로운 공간과 광활한 자연들을 마주했을 때의 여러 가지 감정을 선을 통해 기록하는 행위이며, 추상과 구상, 그 경계의 불분명한 모습의 표현은 작가뿐만이 아닌, 보는 이들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합쳐져 어떠한 감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 ota (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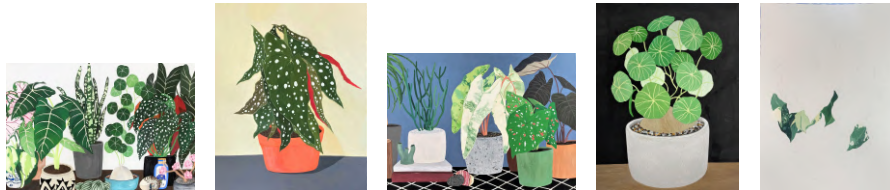
“Like me” (2022), “Lime eyes” (2022), “Mojito” (2022), “Sweet home” (2022), “순간 여름 I” (2022), “여행의 사치” (2022), “우리는 초록에 누워 I” (2022), “우리는 초록에 누워 II” (2022)

인물과 색을 통해 청춘의 소박하고 반짝거리는 순간들을 표현합니다. 화려하고 명료한 색들을 입은 인물들, 그들의 나른하고 어찌 보면 게으른 일상의 모습들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치열했을 젊은 시절을 위로하고 휴식하길 바랍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 국적과 성별이 모호합니다. 젊음은 다른 의미로는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나 타인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그런 자신감, 강인함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색으로 인물을 창조하는 행위를 통해 색이 주는 본연의 힘에서 위로와 즐거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는 제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제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과거와 현실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적인 쾌락 또한 경험하길 바랍니다.

**ota (오타)**는 학부 졸업 후 10여년간 모션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의 아트디렉터로 활동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부터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체전 개인전 등 다양한 전시를 통해 제 작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업디자인에서 경험한 대중적인 감각과 저의 회화적인 감성을 결합한 어렵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젊은 감각의 회화작업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 Rosie Park (로지 박)



“one” (2022), “two” (2022), “three” (2022), “four” (2022), “five” (2022)

전시주제- Greenery Room

Edward O. Wilson defined biophilia as, “the urge to affiliate with other forms of life” in his book Biophilia (1984). He explained that humans have an innate tendency to communicate with nature and other forms of life. In our busy modern life, we still spare time to take trips to the mountains and sea, to meet people, and to take walks in nearby parks as a way of closing out our days. These are simple actions yet are necessary elements for us to flourish.

Since the start of the pandemic in 2020, we have been living lives with restrictions that meant we lost our connections to these experiences and increased our time indoors. We started feeling lonely, anxious, confused and became isolated in our disconnected daily lives. We sought out a solution and for many this was to start bringing greenery into our homes.

We watered the greenery, positioned them in the sunlight and in a way to catch the wind. Through these repetitive and simple behaviours we brought a sense of stability to our lives. We are consoled and comforted by their existence and natural beauty in our houses.

I wanted to express how their quiet power has filled the empty spaces of my house and to remember their gift through painting. It is my wish to share their positive energy with you through my art.

Edward O. Wilson 은 그의 저서 Biophilia(1984)에서 바이오필리아를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과 상생하려는 욕구"로 정의했고 모든인간들은 자연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바쁜현대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어 다른사람들과 만나거나,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가까운 공원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한다. 단순하지만 일상에 꼭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이다.

2020 년 팬데믹이후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살게되면서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로부터 멀어지게되었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세상과 단절된 일상속에서 우리는 외롭고, 불안하며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이를 해결책에 하나로 초록초록한 식물들을 집안으로 들이기 시작했다.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자리를 바꿔주며 햇빛을 받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수 있도록 돌보아주었다. 이러한 사소한 반복적인 습관들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다. 그들의 존재감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주는 작지만 고요한 힘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빈 내 생활공간을 채워주며 힘든시기를 버틸수있게 해준 고마운 그들을 그림으로 기억하고 싶었고 내가 경험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림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었다.

**Rosie** is a freelance artist based in South Korea however spends large parts of her life living overseas in different countries. She paints ordinary yet beautiful things in her daily life, or things that are inspired by her past memories. Painting is a process of completing her work and organizing thoughts together and recollecting feelings and experiences at the same time. The act itself surfaces untold stories with their associated various emotions. She uses bright and various colors and lines to make her work lively and warm, and as such mirrors the many layers we have to our feelings and emotions.

**Rosie** 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해외에 여러나라들에서 살아보며 삶의 경험쌓기중인 프리랜스 아티스트이다. 그녀는 일상에서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과거기억에서 영감을 얻을 것들을 그린다. 딱히 특별한 것은



없지만 보면 금방 알수있는 친근한 것들 말이다. Rosie 에게 그림이란 작품을 완성함과 동시에 생각들을 정리하고 옛기억이나 그때의 감정들을 회상하는 과정이기도하다. 그녀는 사람마음속에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의 레이어들을처럼 한작품 한작품마다 밝고 다양한 색감들과 선들을 이용하여 생동감있고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 Jiwon Ryu (류지원)



#### “Dome” (2021), “Endless” (2021), “Layer” (2021), “Oval” (2021), “Semi-circle” (2021), “Square room” (2021), “Vertical Space” (2021), “Wave” (2021), “Zigzag” (2021)

작품을 통해 작가는 나를 온전히 내려 놓을 수 있는 쉼의 공간 즉, ‘심적 공간’을 주제로 개인을 넘어 유기체의 존재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마음의 공간성, 즉 심리적 공간’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공간을 단순한 시각적 인식을 하는 범위로써가 아닌 심리적 마음의 범위로 다양한 좁은 생명체와 유기체가 자신만의 ‘심적 공간, 마음의 공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존재할 바깥의 유기체들은 존재할 수 없고 ‘심적 공간,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공간 수 마음의 공간성’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구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간의 형태는 인공물인 ‘다면체’로, 자연물인 ‘식물’을 유기체를 대표하는 주제로 택하여 작품에서 공간 바깥의 식물들은 녹거나 시들어가며 존재할 수 없음을 상반된 물질성을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이 같이 다면체의 공간 안에는 마치 생태계의 피라미드처럼 식물들이 무성히 자라고 빠져나오는 모습 이다. 이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온전한 개인의 영역을 상징한다.

공간 안에 담긴 식물들은 서로에게 의존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공간 밖으로 빠져나와 녹아버리는 불안한 형태를 통해 ‘마음의 공간성, 심적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식물, 돌 등의 자연물을 일정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작품의 주체로 하여 인간 뿐만이 혹은 아닌 동식물들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 존재 영역에 관한 이야기로서 범위를 즉, 모든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개인의 공간과 영역의 필요성을 가시화 시킨 작품 시리즈를 통해, 많은 이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만의 안정된 공간은 어디일까?

작품을 감상하며 나만의 안정됨이 있는 공간,

나를 안온하게 하는 자신만의 심리적 공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보며 스스로를 위한 온전한 마음의 시간을 가져 보길 바란다.

류지원 작가는 공간의 개념적 확장과 각종 쟁점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금, 물리적 공간에 심리적인 필요를 더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풀어나가고 있다.

그 심리는 주로 안정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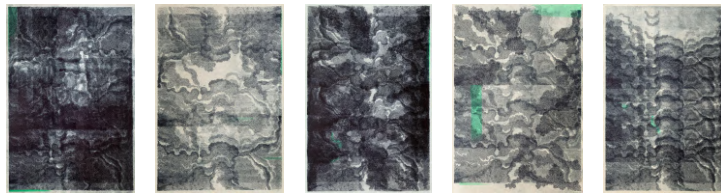
저마다 안정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사회는 안정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 테다. 이 같이 안정됨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공간’, 마음의 공간성을 주제로 작품을 그리고 있으며,

식물과 다면체 도형을 소재로 나를 온전히 내려 놓을 수 있는 쉼의 공간 즉, 스스로를 안온하게 하는 ‘심적 공간’을 주제로 개인을 넘어 유기체의 존재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내고 있다.

작품을 통해 나를 안온하게 하는 자신만의 심리적 공간을 찾아보고 살펴보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온전한 마음의 시간을 가져 보길 희망한다.



### Anna Sheriakova



**“Interval No. 2” (2021), “Interval No. 4” (2021), “Interval No. 8” (2020), “Interval No. 9” (2021), “Interval No. 19” (2021)**

Part of the ‘Interval’ series, these large-scale works operate as a perpetual reflection, with varying degrees of symmetry and order. As I build up layers, a sense of reverberating movement and energy emerges within the expanding pattern. Through this process there is an engagement with visual and tactile experience, of formal and material things, about surface and tone, about thresholds and boundaries. Improvisation is at the centre of this work. It conveys the performative, almost ritualistic aspect of the making; it is about my behavior as an artist fully submerged in the process.

**Anna Sheriakova** is a print artist based in London. Her work explores a sense of overwhelm and how it collides with the realm of beauty.

Employing experimental printing processes, Anna turns her highly-detailed drawings into large-scale, monochromatic canvases with her patterns unfolding intuitively. Iteration is important in her practice as both tool and subject. Working across multiple mediums — from drawing to printmaking, Anna uses repetition as a way to investigate the visual transformations a single image may undertake. Her works sit within an abstract domain, yet their reflective nature alludes to objects found in the physical world, encouraging interpretation on both the micro and macro levels.

Anna Sheriakova holds a Master’s degree in Print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and an Undergraduate Diploma in Graphic Communication Design from Central Saint Martins. Recent exhibitions include ‘Through the Wave’ at Studio 59 and ‘After the High Tide’ at Cromwell Place Gallery.

### Shim Junbo (심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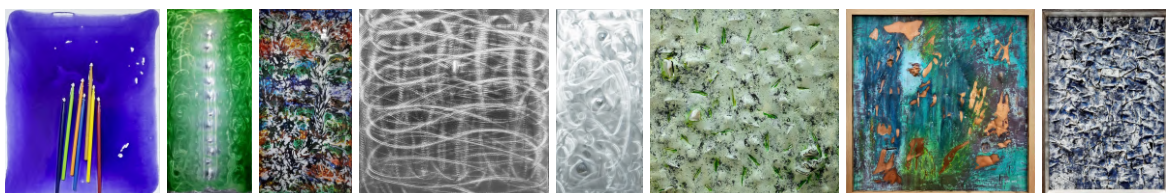
**“Stool 8.20 hours” (2022), “Stool 3.18 hours” (2022), “Table 6.30 hours” (2022), “Planter 4.20 hours” (2022), “Planter 1.10 hours” (2022)**

페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약 5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 페플라스틱을 다시(RE:) 사용하여 5시간의 3D PRINTING을 통해 일상의 물건을 만듭니다.

**Shim Junbo (심준보)**는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 물건을 만드는 디자이너입니다.

### Sori Choi (최소리)



**“Visible Sound(Light Spectrum(分光))” (2021), “Visible Sound(Four Seasons G2)” (2021), “Visible Sound(Landscape 1)” (2021), “Visible Sound(Song of the Wind)” (2021), “Visible Sound(Song of wind)” (2021), “Visible Sound(The day of snow)” (2021), “Visible Sound(Underwater Myth)” (2021), “Visible Sound” (2019)**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와 에너지에는 각기 그들만의 소리가 있다.  
나는 그 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이고 싶다.”

“나의 작품은 연주를 하며 춤을 추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신명(神命)으로 삼매(三昧)에 들어 또 다른 나와 합작으로 완성해간다.”

“연주와 춤, 노래, 글, 그림.  
이 모든 행위는 나에게 똑같은 하나이다.  
그 하나가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음악으로 완성된다.”

“내 작품의 겉은 눈으로 보고 내 작품의 속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매번 내가 또 다른 나를 부르는 데는  
나를 버리고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에게는 음악과 미술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는 예술 행위다.”

**Sori Choi (최소리):**타악솔리스트이며 화가다. 2007년 ‘소리를 본다’ 전시를 개최한 이후 최소리 작가는 40여 년 동안 추구해온 소리의 세계를 응축해 ‘소리를 본다’ 시리즈를 전시하고 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익산예술의전당, 횡성문화예술회관, 포항문화예술회관, 하동아트갤러리, 토포하우스 등에서 전시하였고, ‘소리를 본다’ 주제로 ‘나’의 소리, ‘우리’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물체와 에너지에 고유한 소리를 갖고 있다는 작가의 표현은 시리즈 전시를 포함해 작가 자신의 예술 활동과 작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다.

그림 백두산의 前 멤버이자 전 세계 200여 개 도시에서 연주한 타악솔리스트 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작가와 비교하면 두드림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작품을 연결해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 대신 알루미늄판, 동판, 황동판, 종이, 캔버스 등을 연주하는 것을 비롯해 채색, 부식, 그라인딩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미술평론가인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최소리 작가 작품에 대해 “그동안 금속(드럼)과 천의 피부(북)에서 다양한 소리를 뽑아낸 최소리는 아예 금속과 천의 표면 그 자체에 다양한 표정, 질감을 적극적으로 시술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신체와 스틱 및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사각형의 평면 전체를 공략하면서 특정 지점을 타격해서 구멍을 내거나 스크래치를 발생 시켰다”며 “이로 인해 평면은 부조나 입체적 효과로 환생하면서 회화이자 동시에 요철 효과로 자글거리는 일종의 조각이 됐다”고 평가했다.

즉, <최소리의 소리를 본다(Visible Sound)\_두드림으로 그린 소리>는 세계적인 타악솔리스트이자 뮤지션인 한 사람이 평생 음악으로 전달하던 소리에 대한 탐구를 미술의 영역으로 옮겨낸 실험적인 미술창작 전시이다.

#### **Song Su Been (송수빈)**





“감동” (2022), “아담함의힘시리즈” (2022), “애정시리즈” (2022), “형상시리즈” (2022)

#### 감동

심적으로 많이 힘들던 시절 선명하게 남아 있는 기억 중 하나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꽃다발이었다. 나의 심상에 크게 자극했던 꽃다발의 형태와 색감을 화면에 재배치 하여 작품으로 녹여낸다.

#### 아담함의힘시리즈

보편적으로 크고 단단한 것들이 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약해 보이는 부드럽고 작은 것들은 보이지 않은 강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에서 시작된 작은 것들에 향한 애정을 그림으로 담아낸다

#### 애정시리즈

내가 사랑하는 색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높은 채도의 다채롭고 알록달록한 색감은 시야에 잘 들어오기 때문일까 유독 애정이 많이 간다 나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어 사랑에서 출발한 색채를 향한 애정을 캔버스 위에 다양하게 연출하며 그려낸다.

#### 형상시리즈

내가 사랑하는 색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높은 채도의 다채롭고 알록달록한 색감은 시야에 잘 들어오기 때문일까 유독 애정이 많이 간다 나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어 사랑에서 출발한 색채를 향한 애정을 캔버스 위에 다양하게 연출하며 그려낸다.

### Song Su Been (송수빈)

서울여자대학교 현대미술 전공에 재학중이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우울했던 시기에 다시 믿고 일어나고자 시도 했던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림을 그릴 때 여러가지 색을 사용했을 때나 작은 생명이나 물건을 봤을 때 유독 행복해 했던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캔버스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옮겼을 때 느꼈던 해방감은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영감들 중, 사랑이라는 감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사랑하는 색, 사랑하는 작은 것들에 대한 애정을 표출함으로써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감각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한다.

### Soonsim (순심)



“생각해” (2022), “내가 두고 온 것” (2022), “우리는 계속 서로 오해하지만” (2022), “초록비” (2022), “잊자! 기지개 켜” (2022), “삶은 계속되고 다 지나가고” (2022), “Non, je ne regrette rien”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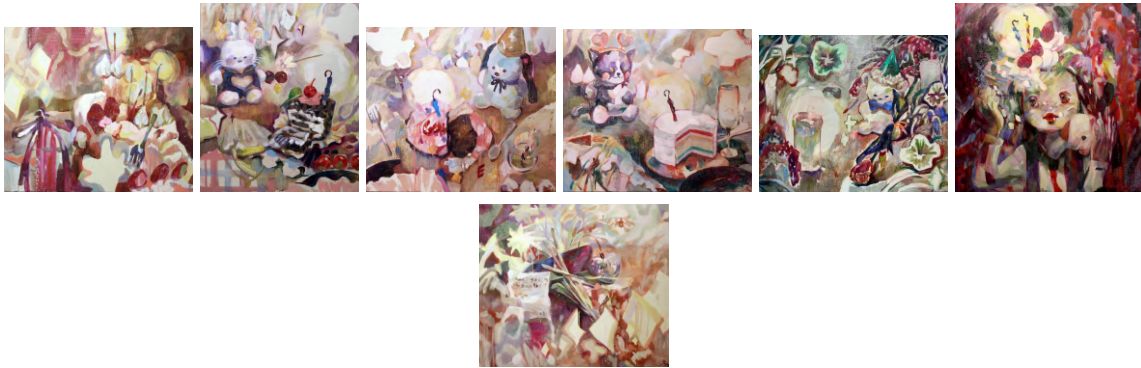
일상은 대부분 커다란 기쁨이나 슬픔 없이 지나가고 우리는 무심한 표정으로 살아가지만 마음 속에는 꿈이 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몽상가들의 초상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Soonsim (순심)은 꿈꾸는 사람들을 그립니다.



## Woo yeon Ju (우연주)



“유실물 보관소 - cake” (2022), “유실물 보관소 - Cherry” (2022), “유실물 보관소 - Lov-e” (2022), “유실물 보관소 - rainbow” (2022), “유실물 보관소 - Regret” (2022), “유실물 보관소 - 미로” (2022), “유실물 보관소 - 상자” (2022)

### Hopeless, not heartless

머물러 있는 모든 마음들로부터

우연에 얽혀 찾아왔던 우리 안의 많은 마음들-소중하게 생각했던, 깊게 마음에 남았던, 혹은 증오했던 것들-중에는, 흐려져 지워진 듯한 것들도 있으나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오늘의 나를 부르는 것들이 있다. 그런 마음들은 하나 둘 쌓여 곧 내가 되기도 한다. 과거를 과거로 보내고 오늘을 바라보리라는 다짐으로 그들을 회피하고 눈 감아 보지만 그들은 확실하게, 여전히, 이곳에 있다.

나의 작업은 이러한 ‘머물러 있는 것’들에게 현재성을 부여하여 눈앞에 불러온다.

밝기보단 어두웠고, 즐겁기보단 괴로웠고, 부드럽기보단 성기었던 감정들을 두 손으로 직접 그려줘서 촉감을 느끼며 과거의 나와 재접촉하고, 재연결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사라지는 것들도, 여전히 살아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도 있으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멈춰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조금할 필요도, 기계적으로 한 발 딛을 필요도 없다. 그보다는 주저앉아 바라보고 있는 풍경에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 보내고 있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만져본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비로소 직접 마주하고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마음들.

그러니 절망하더라도 무정하지 말 것. 세상 밖으로 내보이는 모든 마음에 희망과 애정을 담아낼 것. 그것이 멈춰 있는 듯한 이 삶을 지속할 이유가 된다.

## Woo yeon Ju (우연주)

현재에 귀속되어 있지만, 두고 온 것들에 매일 눈이 밝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그립니다.

과거의 소중한 사물을 통해 현재의 ‘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합니다.

## Yoon Minkyung (윤민경)

파이프로 이루어진 세계, 이 안에 나의 내면들을 담았습니다.

나와 관련된 관계들을 오브제에 숨기거나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공간과 오브제들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며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증기로 떠서 내면 밖으로 날아가거나 정착하고 있는 열기구들,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 정글과 같은 공간 속에 자리 잡은 정체성 등이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 world of pipes, this work is included my inner thoughts.

My relationships are hidden in this objects or expressed by some metaphor.

Spaces and objects in this work are constantly influencing each other and changing organically.

Hot air balloons floating in steam and flying out of the inside or settling down, or identification in a jungle-like space after a long time, show that relationship.

복잡한 관계들과 정체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내면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면 속을 나만의 시각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화상과 같은 존재인 파이프를 통해 내면의 세계관을 구축하였고, 캔버스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I was interested in complex relationships and identities affecting each other and changing, and I observed their inner selves.

I want to express my inner self through my own perspective.  
I've built an inner worldview through pipes that symbolize my self-portrait on my canvas.

**Dayoung Yu (유다영)**



**“Disappearance 1” (2021), “Disappearance 2” (2021),  
“Disappearance 3” (2021)**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사진 용도는 개인의 역사에서 ‘기념적인 날 혹은 ‘특별한’ 순간 에 사용되는 것처럼 껴졌다 하지만 **disappearance** 시리즈는 기념을 하거나 특별한. 것을 벗어나 이 카메라의 순간기능을 이용하여 어떤 날 그러니까, 1시간, 1 분, 1 초라는 물리적 인 시간적 단위를 벗어나 현실에서의 충돌에 의하여 일어나는 언어가 관통하지 않는 감정들에 대해서 텍스트를 빌려 하나의 이미지로 옮기는 것을 풀었습니다.

유다영은 사진을 중심으로 설치 텍스트를 확장된 개인의 감정에 대한 서사를 이야기하고 문장을 씁니다.

**Farangiz Yusupova**



**“Orange Carpet” (2020), “Red Carpet” (2020), “Treasure Trove” (2021), “Untitled” (2020)**

My work is deeply informed by my experience of growing up in Samarkand, Uzbekistan, immigrating to New York with my family, and the difficulties of cultural dissonance. My practice initially involves extensive research for reference images that vary from photographs of my childhood home, Indo-Persian miniature paintings, and Islamic art, which are then processed through many preliminary drawings and digital collages. While painting, I pay close attention to how I interact with the materials I use. I'm interested in telling a story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pace through mark-making. There are no figures in my compositions, only traces of human existence.

The second half of my practice consists of examining the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that gave rise to unique Central Asian aesthetics. This understudied region was shaped by many forces such as Islam, communism, and nomadism. Ultimately, I want to investigate the intersection of personal experiences and historical context through painting.

**Farangiz Yusupova** is an artist whose work explores ideas of cultural dissonance, home, and memory through painting. Born in Samarkand, Uzbekistan, Farangiz immigrated to New York in 2014. She holds a BFA from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in New York. In the summer of 2018, Farangiz was awarded a scholarship to attend a workshop at Anderson Ranch Arts Center in Aspen, Colorado. Her work was exhibited in numerous group shows such as at M. David & Co, Brooklyn, NY, Dodomu Gallery, Liminality Art Space in Long Island City, NY, and New York Live Arts. Farangiz is a participant in NYFA's Immigrant Artist Mentorship Program. In 2022, her work was published in Khôra Magazine, Issues 13-16.